

# 北 ICBM 보유 기술 입증 美 본토 위협도 가능할 듯

(대륙간 탄도 미사일)



## 北 로켓발사 강행

북한이 5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 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후반 미사일 개발에 착수, 1984년 스커드-B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25년만에 ICBM 기술 보유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3천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거리 6천km 이상의 ICBM 개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지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2단 추진체의 낙하지점이 애초 예고된 무수단 발사장 기점 3천600km에는 다소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1998년의 대포동 1호보다 두 배가량의 거리에 낙하한 점을 감안하면 ICBM 능력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당 거리에 단계별 로켓을 낙하시켰다는 점만으로도 북한이 ICBM 능력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날 발사된 로켓의 2단 추진체는 일본 동쪽에서 2천100km 이상 저점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는 무수단 발사장으로부터 3천100km 이상 떨어진 거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대포동 1호 로켓의 2단계 추진체는 1천646km 저점에 떨어졌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ICBM 보유를 발표하자 하더라도 사실상 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무수단 발사제의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린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 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막강한 화력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BM 기술 보유가 갖는 국제정치 및 군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핵폐기 문제로 미국과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유혹한 협상카드를 쥐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입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도 최대 사거리 8천km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가 미국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안보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무수단 발사 기점으로 미국 본토 서부까지는 1만 1천km이지만, 하와이 7천600km, 알래스카 7천400km로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엔더슨 공군기지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3천600km 거리다. 탄두 무게에 따라 사거리를 충분히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날 발사한 대포동 2호 그 사정권이 어디까지인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 인공위성 기술은 北에 앞서나 로켓은 뒤져

### ■ 한국 개발 수준은

북한이 5일 자체개발한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장거리 로켓 '은하2호'에 실어 발사함에 따라 한국의 인공위성과 로켓 개발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 개발 능력은 우리나라가 일부 분야에서 선진국에 육박하는 등 북한을 크게 앞서 있지만 로켓은 북한과 비슷하거나 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 첫 우주발사체(KSLV-1)로 과학위성 2호를 지구 저궤도로 발사, 세계 9번째 인공위성 자력발사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러시아와의 협력 지연과 중국 쓰촨성 지진 여파 등으로 KSLV-1 발사는 오는 7월 말께로 연기된 상태다.

그 사이 이란은 지난 2월 자체개발한 로켓 '사피르-2호'로 '오미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 9번째 위성 자력발사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 개발 능력에서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서 있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능력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광명성 1호나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 2호도 북한 주장대로 시험 통신위성이라 하더라도 전파 발신기 정도가 탑재된 무게 100kg 이내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개발해온 로켓이 우주발사체보다는 군사적 목적의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개발에 본

격적으로 착수한 1990년대 초반 이후 다목적실용위성 1, 2호와 우리별위성 1, 2, 3호, 과학기술위성 1호 등 6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위성이거나 다목적 실용위성급 등 중·저궤도 위성에서는 선진국 기술 수준의 82%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로켓 기술에서, 특히 비행거리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뒤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발사한 은하 2호는 3단 로켓으로 2단 로켓의 낙하지점이 일본 동쪽 2천100km로 추정돼 100kg급 과학위성 2호를 지구상공 700~800km 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인 KSLV-1보다 길다.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추정해볼 때 은하 2호의 총비행거리도 KSLV-1의 비행거리인 2천750km를 크게 넘어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연합뉴스

## 공익 목적 무인도 개발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한 무인도에서 공익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꿨고, 공익 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았을 때는 사업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시제 모시는 한식

한식(寒食)인 5일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현종 객씨 문중 묘지에서 후손들이 시제를 모시고 있다. /위정각기자 jrw@kwangju.co.kr

## 실직해도 1년간 건보 직장가입자 대우

다니다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실직 이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실직 전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되며, 가장 실직한 27만2천여 명에 대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추도록 했다. /연합뉴스

## 빛日만평

- 김중두



기법식수로 오해 받을까 싶다

## J프로젝트 부지내 온실단지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 강행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남도의 서남 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입주할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대규모 외자유치를 추진하려는 전남도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영산강 간척지와 새만금 간척지에 입주할 대규모 농어업회사로 모두 7개 법인 및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마산·산이면 일대 영산강 간척지(713ha) 지구의 우선협상 대

상자로는 한빛물 주식회사, 장수제, 대영산업 컨소시엄, 삼호용양농조합 등 4곳이 뽑혔고, 예비 후보로는 농협회사법인인 매봉 합자회사가 선정됐다. 또한, 전북 새만금 간척지(700ha)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농산무역, 동부정밀화학·동부하이텍 컨소시엄, 새만금 초록마을 등 3곳이 선정됐다. 예비 후보로는 이지 바이오시스템, NH새만금이 지정됐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 만 5세이하 보육비 지원 신청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올해 보육비 지원 대상 기준 소득과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6일부터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 소득이 상위 30%(영·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258만 원)보다 월 소

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한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바우처)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아동은 7월 들어 39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한정승인공고**  
망 강지광 (431125-15523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회고)에 관한 민법 제 108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 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권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년가 307공고인: 강원배  
한정승인수리일: 2009. 3. 9  
공고기간: 2009. 4. 6 ~ 2009. 6. 5  
연락처: 인천 남동구 간석동 501 국동아파트 7-1107  
강원배 (011-797-9105)

광주광역시공고 제2009-220호  
**광주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인인원주민주의견청취공고**  
광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거나 비하여, 입안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광주광역시**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입안내용  
입안일 구분 위치 입안내용  
상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  
지구단위계획(상위도시관리계획) 구역내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  
상위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  
2. 주민의견 청취기간: 2009. 4. 6 ~ 4. 20(15일간)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

**목장용지 판매**

- 위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 목장용지: 6,390㎡(1,933평)
- 대지: 476㎡(144평)
- 총계: 3,734평
- 건평: 2,350㎡(약700평)건사, 돈사, 주택(104㎡) 버섯재배사 등 관리지역으로 필지는 여러 필지이나 한곳에 붙어있음
- 매도가: 1억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010-3617-8810**

**신행안내 4면제**

**광州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직통: (062)227-9600  
• FAX: (062)227-9500

**투자자모심**

- 월2부 수익금지급
- 확실한 담보130%
- 안전보장, 수익보장, 비밀보장
- 최소 5,000만 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

**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전기1 + 공기중 열에너지2 + 열에너지3

- 벙커 C유 대비 70%
- 도시가스 대비 65% 절감
-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
- 한대의 기계로 냉방, 난방, 온수까지 3배의 효과
- ◆ 생산공장, 대중탕, 호텔, 병원, 복지시설, 식당 등
- 전국 시,군 대리점 및 딜러 모집합니다.

**인릭웰스텍(주) 특판사업부 063)838-2231, 010-6794-0094**